

이 섬 식물들의 씨앗을 입에 담는데, 그럴 때면 햇볕에 점차 갈색으로 물들어가던 숲의 녹음에 새들의 선명한 색채가 더해져 그 대비가 두드러지지. 다른 종들 중에서도 특히 여러 종의 잉꼬와 여기서는 네덜란드 비둘기라 불리는 푸르스름한 비둘기가 그렇다네. 이 숲에 살고 있는 도착종 원숭이들은 거뿔한 나뭇가지를 타고 노는데, 초록빛 회색이 감도는 털과 새까만 얼굴로 또렷이 부각되지. 개중 냇냇은 나뭇가지에 꼬리를 감고 매달려 공중에서 몸을 흔들고, 또 냇냇은 팔에 새끼를 안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 다네. 사냥총이 자연이 낳은 이 평화로운 아이들을 죽이겠다며 겁박하는 일도 없지. 들리는 것이라곤 오로지 환호하는 울음소리며 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남극지방에서 날아온 가지가지 새들이 지저귀는 이색적인 소리뿐, 이 소리 들은 숲의 메아리를 타고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네. 강은 물에 잠긴 바윗등에 거품을 일으키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맑은 물속 군데군데 녹음과 그늘이 어우러져 고아하게 군락을 이룬 나무들과 그곳을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들의 생동을 비춰주곤 했어. 거기서 수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면, 강이 계단처럼 겹겹이 층을 이룬 바위로 떨어지기에, 떨어져 내린 강물은 마치 수정처럼 고르고 깨끗한 수면을 이루다가 다시 아래로 쏟아지면서 부글 부글 끓는 거품과 함께 깨져버린다네. 이렇듯 파란만장을 겪는 물에서 혼란스럽게 웅성대는 소리가 수천 가지로 흘